

# ESG로 바라본 문화예술

**연수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문화예술공간연구실 부연구위원

본 브리핑은 최근 논의가 뜨거워진 ESG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ESG의 근원적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고, 문화예술분야의 ESG 각 요소별로 개념과 조직 및 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실천 사례 등을 소개한다. 더불어 문화예술분야 ESG 실천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 ■ ESG는 그저 지나가는 유행일까?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거버넌스)`의 앞 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가리킨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해 `ESG`를 검색하면 2021년 기준 39,739건의 뉴스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20년 4,761건에서 800% 이상 증가한 수치로 ESG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ESG의 개념은 유행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EGS는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Our Common Future(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최초의 정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역사가 깊다. 여기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인류가 지속하기 위해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0년대 초에 UNEP와 주요 금융기관의 논의 자리인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에서 ESG

가 처음 사용되었다. 이때부터 기업이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경영요소를 ESG라고 보기 시작했고, 이는 개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과 사회공동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유엔 책임투자원칙, UN PRI)고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ESG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친환경`, `탄소중립` 등 일 것이다. 환경 분야 관련어가 먼저 떠오르는 데에는 앞서 언급한 ESG의 등장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처음에는 환경 이슈에서 시작하여 점차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되어 지금의 세 가지 측면으로 개념이 정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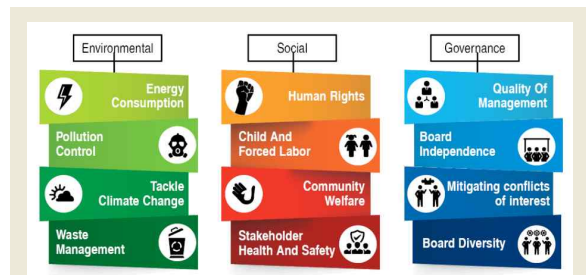


그림 1. ESG 세가지 요소별 주요 내용

(출처 : Value Research, 2021)

ESG는 기업경영 전략이나 투자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다양한 사회의 이해관계를 포함한 사회경제 공동체가 함께 해야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대주제에 한걸음 한걸음씩 다가갈 수 있다. 국제기구와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 노력과 함께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ESG 관점에서 문화예술분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 ■ 지속가능한 환경(Environment)

지구의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다. 집중호우, 슈퍼태풍, 가뭄, 폭염 등 이상 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북극의 해빙 속도가 최근 2년간 10-15배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의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로 다시 환경재난으로 이어져 전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성장위주의 발전과 자연환경 개발을 통한 발전보다는 다양한 생물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적 관점에서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친환경적 관점은 익숙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이라는 매개를 활용한 친환경 캠페인에 앞장서거나, 문화예술 행사, 이벤트, 프로그램을 친환경에 대한 실천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기관이 친환경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위를 측정하고 발표하는 형태의 노력도 함께 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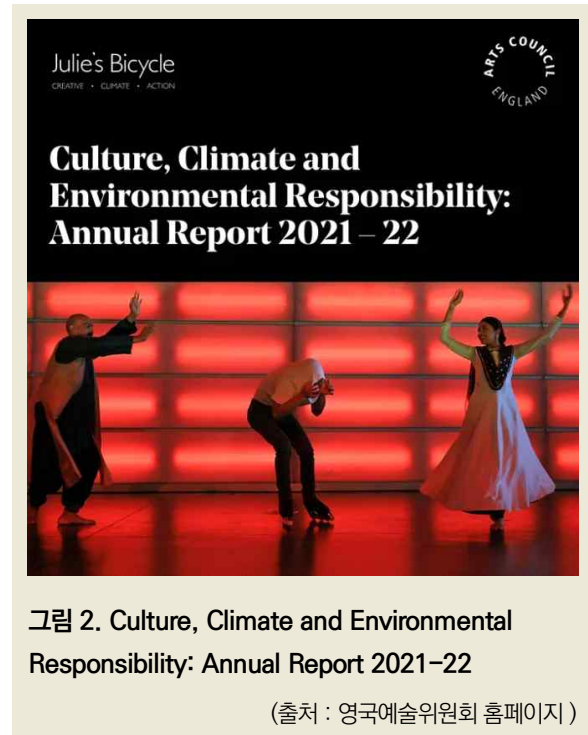


그림 2. Culture, Climate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nual Report 2021-22

(출처 : 영국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먼저 실천적인 관점에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모빌리티 제로 운동이다. 제롬벨(Jérôme Bel)이라는 프랑스 현대무용 아티스트는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로 비행기를 타지 않는 운동을 선언하면서, 본인이 아닌 작품만 국가나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영국의 줄리스바이시클(Julie's Bicycle)이라는 기관은 영국예술위원회와 함께 영국 문화예술기관이 배출하는 탄소량을 기록하고, 감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도록 애쓰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의 경영에서 ESG를 실천함에 있어 환경적인 부분이 매우 강조되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친환경적 논의와 움직임은 꽤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왔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의 의미, 역할, 적용을 구체화하는 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전에는 기후위기(환경)에 대한 주제로 접근하여 장르적 예술 활동을 펼쳤다면, 최근에는 장르적 융합, 주제의 확장, 활동방식에 대한 고찰 및 변화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 조직은 아직까지는 기후위기 대응 주

체로서 역할을 찾는 단계에 있으며 실천적인 움직임은 간헐적 혹은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 ARKO 정책현신소위원회(기후위기-예술정책 워킹그룹)를 통해 정책차원의 대안을 고민해왔으며, 이를 통해 문화정책의 확장과 전환의 동력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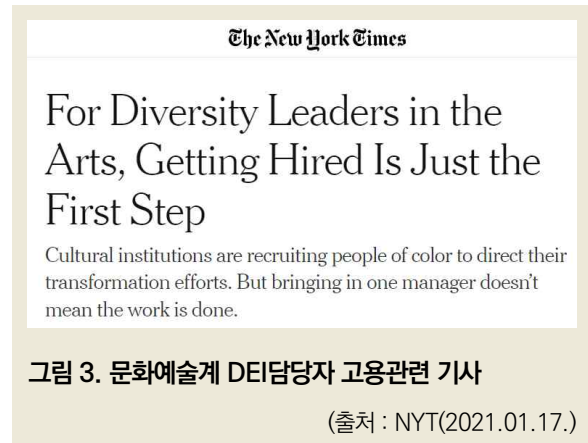
## ■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Social)와 DEI

다음으로는 ESG의 S(Social)의 대표적 개념인 DEI를 소개하고자 한다. Diversity(다양성), Equity(형평성), Inclusion(포용성)이 바로 그것이다. 다양성은 누구도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신체적 능력, 성적지향과 같은 정체성 등으로 사회적 자원이나 권리, 의학적 치료에 접근하는데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형평성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적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기회, 절차, 제도 등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포용성은 모든 구성원이 다름을 존중받고, 조직에 소속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글로벌 기업인 맥도날드, 구글, 트위터 등에서도 DEI를 조직문화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기업정책을 세우고 있다. 경력개발 플랫폼인 링크드인(LinkedIn)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0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DEI관련 직함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업 내에서 DEI최고책임자, DEI 매니저 등 관련 직무와 직책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접근성(Access) 개념을 추가한 DEAI 경영진을 구성하는 조직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움직임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뉴욕시티센터(New York City Center),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 포드극장(Ford's Theatre), 메트로폴리탄 박물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등 많은 문화예술기관이 DEI관련 담당관을 고용하고 있으며, 관련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DEI 이니셔티브는 채용, 교육, 프로그램, 거버넌스, 커뮤니티 연계까지 기관 운영의 전반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가치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모든 구성원과 참여자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 ■ 투명하고 포용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마지막으로 G(Governance)는 거버넌스로 ‘의사결정 구조 혹은 방식’을 가리킨다. G를 지배구조라는 단어로 사용하다보니 기업을 통제하는 컨트롤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G는 기업이나 조직의 활동에 관여하는 다양한 참여자의 권리와 책임까지 아우르는 관점에서 의사결정구조 혹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E(환경)와 S(사회)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은 당연히 G(거버넌스)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SG의 기본 중에 기본이 G라고 봐야한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윤리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ESG를 위한 경영전략을 도출하고 추진하면서 양질의 정보공시가 필수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ESG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박물관에서는 DEI 문제를 의미 있게 추

진하기 위해 조직이 원하는 변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직원을 포함한 구성원의 목소리와 관심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력의 하나인 것이다. 지역사회 지도자, 진보적인 활동가, 예술가, 자체 직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사를 추가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경영 정보공시를 의무화 하는 것도 거버넌스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 구성원 모두의 공감과 실천에서부터 시작

ESG경영을 위한 전략과 실행체계를 설계하고 추진한다면 구성원 전체가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사례들을 단순히 조직이나 기관에 도입한다고 ESG경영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느 극장이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담당자가 지정되고, 담당자만의 추가적인 업무로 이해한다면 이를 ESG경영의 최종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행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DEI담당관 직위가 신설되고 고용하는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DEI관련 담당자를 고용하는 것이 ESG실천을 위한 첫걸음이고 중요한 과정이겠지만, DEI 가치를 조직의 모든 측면에 적용하고 통합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계획 설계와 추진, 감독 등을 위한 진정한 권한과 예산, 조직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ESG를 단순히 조직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하나의 포장재로서 활용되는 것은 아니냐(ESG위성)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예술분야에서의 ESG 개념과 사례를 세 가지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봤지만, 각 요소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결국에 ESG는 다양한 사회의 이해관계를 포함한 사회경제 공동체가 함께 해야만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대주제에 한걸음 한걸음씩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참고자료

사회적가치연구원(2022), 「S in ESG」, 서울: 파라 프로젝트.

한상범·권세훈·임상균(2021), 「글로벌 ESG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onio C. (Florida State University, USA) Cuyler(2022), 「Access,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n Cultural Organizations」

Omkar Vasudev Bhat(2021) The rise of ESG investing. 2021.02.19. Value Research

Rothwell, William J. , Ealy, Phillip L. , Campbell, Jamie(2022), 「Rethinking Organizational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S. Mitra Kalita(2022), What Your Chief Diversity Officer Needs. Time. 2022.06.07.

Robin Pogrebin(2021), For Diversity Leaders in the Arts, Getting Hired Is Just the First Step,2021.01.17. The New York Times.

Tim Schneider(2022), Here Are 5 Concrete DEI Policies Other Industries Have Used Successfully That the Art World Would Do Well to Consider. 2022.12.20. artnet news.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현(2022). "ESG로 바라본 문화예술".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316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수현 suhyun.yeon@kcti.re.kr  
ACKIS브리핑 작성 2022.12.29.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문화예술ESG #DEI